

전주 등 인근 대도시와 차량으로 40분... 지리적 접근성 '최상'

국민연금공단·JB금융 연수원 전기안전교육원 등 최종 유치

정읍시가 국민연금공단(NPS) 연수원과 JB금융그룹 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원 건립을 최종 유치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적의 연수 도시로 발돋움했다.

이들 연수원의 대상 부지는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이용 시 서울 용산역과 수서역에서 정읍역까지 1시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최상의 지리적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주·광주 등 인근 대도시와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자리해 있고, 호남고속도로 내장산 나들목에서 5분 거리에 인접해 있는 등 시흥팔달로 연결된 뛰어난 교통인프라와 차량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수원 메카 도시 발돋움

국민연금공단 연수원과 JB금융그룹 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원 등 3개 연수원이 건립되는 대상 부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도심지와의 연계성이 뛰어나 연수원 건립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특히, 정읍만의 정체성을 기본으로 한 꽃과 사람의 향기, 소리와 풍류, 맛의 향기 등 다양한 향토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활용한 휴식과 힐링, 치유를 산업화할 계획이 더해지면서 연수 도시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백제가요 정읍사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내장산 국립공원 등 정읍만의 정체성을 기본으로 한 역사·문화·생태·체험관광은 물론, 구절초와 벚꽃, 라벤더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를 자랑하는 라벤더 농원 등 정읍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의 발판이 될 향기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밀그림도 완성되며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자원을 기반으로 활력 넘치는 문화·관광·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정읍시민들에게 자랑이 되는 연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세계 3대 연기금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등지'

정읍시 부전동 1017 일원에 동지를 트는 국민연금공단(NPS) 연수원(부지 6만1,616㎡/1만 8,638평)은 총사업비 460억원을 들여 2021년 설계에 착수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연수원 유치를 위해 부시장을 추진 단



JB금융 통합연수원 기공식



JB 연수원 조감도



용산호 정경

정읍만의 정체성 기본으로 한 다양한 향토자원 잠재적 가치 활용 휴식·힐링 산업화 계획 더해져

3개 연수원 완공 시 농축산물 소비 숙박시설 인력 채용 일자리 창출 기여 내장산 자연휴양림·용산호 분수 등과 어우러질 경우 더 큰 시너지 효과

장으로 임명하고 연수원 유치를 위한 부서별 협업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왔다.

또,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전북도,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연수원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989년 9월 18일 설립돼 109개의 지사와 임직원 7,500여명의 인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기금 적립액은 무려 752조를 보유한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연수원이 완공되면 7,500여명의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가족이 연수원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농축산물 소비와 일자리 창출, 건설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JB 통합연수원 내년 말 완공 목표로 '첫 삽' 정읍시와 JB금융그룹이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은 지난 12월 건립을 위해 첫 삽을 떴다.

총사업비 500여억원이 투입되는 JB금융그룹 통

합연수원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 약 1만평(34,26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된다.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JB금융그룹 임직원들의 인재 양성의 요람뿐만 아니라 정읍의 랜드마크 체류형 시설로서 지역 상생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JB연수원에는 연수동과 숙박 등, 운동장 등이 들어선다. 완공 후 전북은행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인 광주은행, JB우리카페, JB자산운용과 감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CBank), JB증권 베트남, JB캐피탈 미얀마 등 해외 자회사까지 그룹사 직원 4,000여 명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뿐만 아니라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 안전의 공적 가치 실현, 전기안전교육원 이전 확정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이전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전기안전교육원은 전체 7만3천여㎡의 부지에 3만6천㎡ 규모로 조성되며 교육관과 생활관, 직원 숙소, 다목적교류센터 등 연 건축면적 1만4천여㎡의 규모로 신축된다.

교육관은 매주 200여명의 전기안전 관련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상 4층 연면적 4,800㎡ 규모로, 생활관은 지상 4층 연면적 7,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원 숙소를 지상 3층 연면적 600㎡로 조성할 계획이며, 전기안전 관련 인적 교류와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다목적 교류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원이 완공되면 현재 교육 인원 대비 1.5배가량 늘어난 매주 150여명의 교육원 교육이 진행되며 연간 5,000여 명의 교육원 방문이 예상된다.

지역 농산물 소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시너지 효과 UP 기대

내장저수지와 용산호를 양축으로 하는 정읍 토탈랜드 구상에 매진하며, 공공 투자를 강화

해 오고 있는 시는 3개 연수원을 구심점으로 정읍 발전계획에 탄력을 받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3개 연수원이 완공되면 지역 농축산물 소비와 숙박시설 인력 채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세수 증대 등 경제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체류형 관광단지가 조성돼 정읍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유발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장호에서 용산호를 아우르는 생태·문화·관광 체류 벨트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내장산 자연휴양림과 용산호 분수, 수변 둘레길, 천사 히어로즈 등과 어우러질 경우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3개 연수원이 전국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 기업과 협의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내장산리조트를 중심으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살고 싶은 '진안', 다시오고 싶은 '진안'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마이산 일출(전라북도청 제공)

NAVER | 진안고원 | 마이산